

틀 의미론을 통한 인지적 의미학습에 관한 연구*

오 주 영
(경성대학교)

1. 들어가기

의미론은 낱말이나 구, 그리고 문장 등의 의미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 형식의미론에서 논의된 의미론은 주로 진리조건에 기반을 둔 「의미론적 의미」에 초점을 두었다.¹⁾ 반면에 인지의미론은 어휘나 문법적 구문이 나타내는 의미와 기술에 대한 접근법으로서 언어표현, 그것이 사용된 문맥,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의 과정이나 결과물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본질을 규명하여 해석자가 보다 완전하게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인지의미론은 어떤 표현이 특정 문맥에서 사용되었을 때 그 표현의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것에 대하여 먼저 Fillmore(1985: 230)가 제시한 문장을 통해서 인지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1) 일반적으로 「의미론적 의미」란 그 표현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지칭하고, 「화용론적 의미」는 특정 문맥에서 나타내는 의미를 말한다. 여기에서 논하는 의미론은 그 모두를 통합하는 「인지의미론」에 속한다.

의미론적 해석(construal)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My dad wasted most of the morning on the bus.

진리조건에 근거한 형식의미론에서는 하나의 명제가 참이 되는 조건을 규명하고, 그러한 조건이 그 문장의 「의미론적 의미」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1)은 'my dad' 라는 명사구가 지시하는 사람이 'the bus'라는 명사구가 지시하는 버스에서 'the morning'이라는 표현이 지시하는 날 아침 시간의 대부분을 보냈을 경우에 참이 된다. 또한 그것이 바로 (1)의 의미라는 것이다.

반면에 언어표현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자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과 기술을 목표로 하는 인지의미론에서는 왜 'father'가 아니고 'dad'라는 낱말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단순히 'dad'가 아니라 'my dad'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기술에 초점을 둔다. 즉, 'father' 대신에 'dad'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와 화자의 아버지 사이의 관계적 특성을 전달하고, 또한 'dad'가 아니라 'my dad'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와 청자가 동일한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달한다. 또한 'morning'이 기술적으로는 자정 이후 정오까지 12시간의 시간대를 지칭하지만, 일상대화에서 우리는 관습적으로 잠에서 깨어난 정오 이전의 시간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most of the morning'이 지칭하는 시간은 일상적인 이해에 근거하여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spent'가 아니라 'waste'라는 낱말을 선택함으로써 화자는 시간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은유적으로 개념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또한 'the bus'와 같이 쓰인 전치사로 'on'을 선택한 것은 그 버스가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고 있는 버스임을 나타내고 있다.³⁾

이와 같이 인지의미론에서는 언어표현이 사용된 주변 환경과 그 표현이 전달하는 상황에 대하여 해석자가 이해하는 모든 것을 기술하고 설명하고자

2) Lakoff & Johnson(1980)은 개념적 은유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3) 영어에서 운송수단으로 in 또는 on을 사용할 있다. (a) John is in the bus/train/plane/boat. (b) John is on the bus/train/plane/boat. 운송수단이 정적(static)이면 그릇으로 포함을 나타내므로 in을 선호하고, 동적(dynamic)이면 교통수단이 도로위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지탱을 나타내므로 on을 선호한다. (David Lee 2001: 41)

한다. 이러한 기술과 설명에 필요한 도구 중 하나가 틀 의미론(frame semantics)이다.

예컨대, 남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여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두 번째는 「군대 이야기」이고, 첫 번째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여자들이 군대이야기와 축구이야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아마 군대에 가보지 않았기에 군대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기 때문이고, 또한 축구에 대한 배경지식인 축구경기의 규칙을 모르기 때문이라. 가령, 축구경기에는 「오프사이드(offside)」라는 규칙이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축구의 경기규칙, 즉 축구경기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어야 비로소 그 용어를 완전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틀은 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일종의 배경지식이다.

물론 틀 그 자체가 낱말의 「의미」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지만, 틀은 낱말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다음 예를 보자.

(2) (a) Did you know that Sue is John's *mother*?

(b) Sue is not really cut out to be a *mother*.

위의 (2)에서 'mother'가 (a)에서는 생물학적 관계를 지시하기 때문에 유전적 틀에 해당하고, 반면에 (b)에서는 생물학적 관계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특별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 즉 따뜻함, 애정, 보살핌 등 헌신적인 활동 등을 하는 사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는 사회적 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하나의 낱말이 어떤 틀에 속하느냐에 따라 의미해석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a *strong woman*'에서 낱말 'strong'에 대해서 살펴보자. 'strong'의 핵심의미는 'a *strong man*'에서와 같이 물리적인 힘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a *strong woman*'에서는 그 의미가 육체적 힘을 가진 여성을 나타낼 수 있지만, 이 경우의 전형적인 의미는 도덕적 힘이나 역경을 견딜 수 있는 정신적으로 강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⁴⁾ 이런 도덕적 힘의 개념은 'a *strong man*'

4) 틀 의미론은 man과 woman의 의미를 의미자질 [MALE], [ADULT], [HUMAN]을

에서는 그렇게 현저하지 않다. 이것은 문화적 규범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육체적으로 더 강하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육체적 힘을 요구하는 일을 더 자주하게 됨으로써 육체적 힘은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더 높게 평가된다. 이와 같이 육체적 힘은 주로 여성의 영역이 아니라 남성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a strong man'에서 'strong'은 「힘이 세거나 육체적으로 튼튼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 여성이 전통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여성의 역할은 남성과 다소 달랐다. 그 역할에서 중요한 속성은 육체적 힘이 아니라 역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a strong woman'에서의 'strong'의 해석에 매우 다른 틀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동일한 낱말이라도 어떤 낱말과 연어(collocation)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볼 수 있다.⁵⁾ 따라서 틀 의미론은 특정 낱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낱말의 존재와 사용에 대해 배경과 동기를 제공하는 개념적 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지의미론과 그에 근거하여 의미를 해석하는 접근법의 하나인 틀 의미론을 살펴보고, 의미해석에 있어서 틀 의미론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학습자들에게 그 틀 의미론을 영어문장의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학습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⁶⁾

2. 틀의 개념과 특성

이 절에서는 먼저 틀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러한 틀에 해당하는 특성을 다양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이용하여 의미를 도출하려는 생성의미론의 성분분석(componential analysis)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접근법이다.

- 5) a strong taste, a strong smell, a strong candidate 등에서도 그 각각의 의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6) 이 연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Langacker와 Fillmore 등이 중심으로 연구한 바를 나름대로 정리하여 영어학습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인지언어학자들은 Fillmore의 「틀 의미론」을 그들의 인지언어학이 시작된 그 당시부터 그것의 핵심이론의 하나로 받아 들여왔다. 그 이유는 학술적 용어나 설명방법에 있어서 그 나름의 특이성이나 독자성을 보이고 있지만, 그의 언어관이 근본적으로 다른 학자들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Fillmore(1982) 자신도 「틀」이라는 말을 「도식」이나 「형태」, 「대본」, 「시나리오」, 「상념적 발판」, 「인지 모형」 등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 그가 「틀」이라는 낱말을 그렇게 넓은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미 언어학의 영역에서만 넓게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과학이나 인공 지능학의 영역에서도 꽤 넓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7)

이와 같이 Fillmore(1982: 111)는 틀의 개념을 “지식의 통합적 체계 또는 경험의 도식화로 여기고,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속하는 전체를 이해해야하는 개념의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틀이란 문화적 관례, 세상에 대한 믿음, 공유된 경험, 일을 하는 방식, 그리고 사물을 보는 방식 등에 대한 특정한 이해로서 “하나의 틀에 속한 개념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틀의 구조 전체를 알아야만 하는 그러한 개념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낱말의 경우에 특정 낱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낱말이 개념화하는 범주의 존재에 대하여 동기와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 틀이라는 것이다.8)

이러한 틀의 개념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틀은 배경지식에 해당하는 다. Lee(2001: 8)는 틀의 개념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가 토박이 영어화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wicket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질문을 받는다면, 그는 도움을 얻기 위해 사전을 참고할 수 있다.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는 “one set of three stumps and two bails”라고 정의를 내린다. 그러나 크리켓 경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토박이 화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의미할까?

7) 인공지능학자인 Minsky(1975)는 일찍이 「틀」이라는 말을 우리의 장기기억 안에 들어 있는 지식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사용하였다. 모든 지식이나 개념은 반드시 하나의 틀의 조직을 가지고 있게 되어있다는 것이 그의 「틀 이론」의 요점이었다.

8) 이 연구에서도 Fillmore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다.

그래서 그는 wicket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크리켓 경기에서 차지하는 전반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예컨대, 투수로 알려진 사람이 특정 방식으로 wicket으로 공을 던져 그것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반면, 타자는 wicket 앞에 서서 방망이를 사용해서 공이 wicket을 맞추지 못하도록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낱말 wicket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사전적 정의를 초월해서 확장되는 상당한 양의 지식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런 배경지식을 「틀」이라 한다.

둘째, 틀 그자체가 일반적으로 낱말의 「의미」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지만, 틀은 의미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이다. 예컨대, 낱말 'uncle'은 일반적인 친족 관계를 이해하는 문맥에서만 뜻이 통하는데, 특히 그 문맥은 'uncle'이 어떻게 'father', 'mother', 'aunt' 등과 같은 용어와 관련되는지를 말해준다. 이 낱말들이 비록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틀의 개념은 전경화(foregrounding)⁹⁾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Langacker(1990: 6)에 따르면, 'hypotenuse'는, 비록 「직삼각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낱말은 직삼각형의 개념으로부터 그 의미가 도출된다. 즉, 낱말 'hypotenuse'는 직삼각형의 한 요소로 직각의 맞은편을 지시한다. 그래서 wicket나 uncle과 같이 'hypotenuse'는 더 큰 틀 내에서 전경화 되고 나머지는 배경화 된다.

넷째, 틀의 개념은 다차원적이라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낱말 mother는 가장 현저하게는 유전적 틀과 사회적 틀 외에 다른 많은 틀에 속할 수 있다. 아래의 예를 보자.

- (3) Mary adopted John when he was a baby, so she's not his real mother—but in fact she has been a wonderful mother to him.

우리는 위의 문장에서 'real mother'의 'mother'는 유전적 틀에, 'wonderful mother'의 'mother'는 사회적 틀에 적용하여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틀의 개념은 개념적 차원인 동시에 문화적 차원이다. 개념적 차원에서 'mother'의 의미

9) 전경화란 두 가지 현상에 대한 상대적 현저성을 일컫는다.

는 'father', 'daughter', 'aunt', 'sister' 등과 대조해서 정해지고, 문화적 차원에 서 mother의 의미는 그 낱말이 해석되는 방법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문화적 차원의 또 다른 예로서 'weekend'를 살펴보자. 이 낱말은 문화적 패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약 5년 전만해도 우리의 지식기반 속에 주말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가리켰으나, 지금은 토요일이 주로 휴무이기에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틀의 개념에는 내포(connotation)¹⁰⁾라는 전통적인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들에게 낱말 'weekend'는 「기분 전환, 스포츠, 캠핑, 여행 등」의 유쾌한 이미지를 환기시키고, 이것은 낱말 'mother'가 「따뜻함, 애정, 보살핌 등」의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것과 같다. 물론 동일한 언어 공동체에 속할지라도 서로 다른 구성원들은 특정 낱말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틀 사이에 개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낱말 'dog'에 대하여 「귀여운 존재」나 「무서운 존재」 등 서로 다른 이미지, 즉 다른 내포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보통 의사소통의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차이는 공통 지식기반에 비해 차이가 작기 때문이다.

다섯째,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현상이더라도 그 현상이 다른 틀에 놓이게 되면 때때로 서로 다른 낱말에 의해 지시된다. 예컨대, 낱말 'roe'와 'caviar'는 동일한 실체를 지시하지만, 사용 맥락이 해부학적 틀인지 또는 요리법의 틀인지에 따라 구별된다(Langacker 1987: 164-5). 한국어에도 「명태」가 말리거나 얼리지 않은 틀에서는 「생태」로, 말리지는 않았으나 얼린 틀에서는 「동태」로, 그리고 건조되어 말린 틀에서는 「북어」 또는 「황태」로 지칭된다. 「조기」의 경우에도 말리게 되면 「굴비」로 지칭된다.

반대로, 동일한 낱말이 서로 다른 틀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예컨대, 'knife'는 보통 음식을 먹기 위해 사용하는 틀과 누군가가 칼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듣는 틀 사이에는 다른 개념이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

10) 의미론적 의미론에서 의미를 내포(intension)와 외연(extension or denotation) 두 가지로 다루었다. 예컨대, <처녀>의 의미는 결혼하지 않은 「숙자, 명자, 경자, 미자」를 가리키는 외연적 의미와, 외연의 공통 의미자질인 [결혼하지 않은 성숙한 여성]이라는 내포적 의미이다.

에서 낱말 'knife'의 의미는 부분적으로 그 낱말이 사용되는 틀의 함수이다.

여섯째, 틀의 개념은 언어 변화에 대하여도 관여한다. 새로운 틀이 발생할 때 기존 낱말은 종종 새로운 영역으로 전이되어 의미 변화를 겪는다. 예컨대, 항공기와 관련된 많은 낱말은 항해 영역으로부터 도출된다. 비행기를 타는 과정을 'boarding', 승객 지역을 'deck', 요리실을 'galley', 비행기 왼쪽을 'port', 그리고 오른쪽을 'starboard'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것이 자동차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Lee 2001: 10).

다른 예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에 적용되는 'bug'이다. 이 용어는 초창기의 한 컴퓨터에서 생긴 문제가 그 속에 죽은 벌레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There's a bug in it"라고 말했다고 할 때, 그는 'bug'를 원래의 의미로 사용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새로운 틀을 활성화시키게 되었다(Chafe 2000: 115-6). 그러나 요즘에는 'virus'가 사용되는데, 이것도 컴퓨터가 고장이 나는 것을 사람이 'virus'로 병에 걸리는 것과 동일한 틀에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컴퓨터 틀에 이런 낱말을 적용시킨 사람이나 듣는 사람도 전혀 개의치 않고 새로운 의미적 잠재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예와 관련이 있는 사실은 새로운 의미가 원래의 의미와 완전히 분리되는지의 여부는 그것을 사용하는 화자들이 그것의 내적구조, 즉 그것의 동기화를 알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예컨대, 낱말 'breakfast'와 'cupboard'에서 전자는 「저녁식사 후 아침까지 긴 시간 굶다가 그것을 깨드렸다」에서 동기화를 찾을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그릇을 올려놓는 판자」에서 동기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대화가담자는 쉽게 이해하게 된다.

3. 틀의 적용 범위

위에서 틀이라는 개념을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속하는 전체를 이해해야 하는 개념의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틀은 낱말 하나하나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장의 의미나 담화

의 의미를 분석하는데도 쓰일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가 내세우는 틀 이론의 핵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것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틀이라는 이론을 문장, 담화, 그리고 문화의 측면에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3.1 문장

틀 이론을 먼저 문장의 수준에 적용하게 되면 문장의 구성단위인 낱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Fillmore(1982)의 주장에 따르면, 문장이란 문법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의 「격의 틀」이고, 인지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의 잘 도식화된 인지적 「장면」이거나 「상황」이다. 따라서 한 문장의 중심어에 해당하는 동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중심어가 아닌 명사나 형용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도 반드시 문장이라는 틀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낱말의 의미는 언제나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 문맥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런 입장에 따라 틀 이론의 장점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틀의 개념은 낱말의 의미 확장(extended meaning)¹¹⁾이나 다의성(polysemy)의 현상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해 준다. 왜냐하면 하나의 낱말이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그것이 사용되는 틀이 하나 이상이기 때문이다.

낱말의 의미 확장의 경우, 사람들은 새로운 인지적 틀을 만들게 되고, 이 경우에는 자기가 익히 알고 있는 인지적 틀에서 쓰이는 낱말들을 빌려 쓰게 된다. 이렇게 하여 그 낱말에는 새로운 의미가 추가된다. 가령 'bachelor'라는 낱말은 원래 「미혼 남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 후에 사람들은 그것을 「교미기에 있는 상대가 없는 물개의 수컷」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은유를 통한 새로운 인지적 틀을 차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낱말이 「학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것도 틀림없이 새로운 인지적 틀을 차용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발생했을 것이다.

11) 인지의미론에서는 원형범주화(prototypical categorization) 이론에 따라 낱말의 의미도 원형의미(기본의미 또는 핵심의미)와, 그것에서 파생된 확장의미로 나눈다.

또한 다의성의 예로서 아래의 두 문장을 비교해 보자.

- (4) (a) Cars *angle*-packed as close as herring-bones.
- (b) Let's look at the problem from all *angles*.

위의 예에서 'angle'이라는 낱말이 (a)와 같이 가시적 틀에서 보면 차가 기울어져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에, (b)와 같이 절차적 틀에서 보면 직선이란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듯이, 그 문제를 모든 각도에서 절차에 따라 하나씩 살펴보자는 의미로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낱말이 여러 개의 의미를 지닐 때는 반드시 다른 틀에서 사용됨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¹²⁾

둘째, 틀의 개념은 동의어나 유의어(synonymy)의 현상도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해 준다. Fillmore(1982: 121)에 따르면, 'land'와 'ground'는 둘 다 「마른 땅」을 가리키는 의미에서 동의어내지 유의어로 착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동의어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서로 다른 틀 속에서 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land'는 반드시 'sea'와 대립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틀」에서만 쓰이고, 'ground'는 반드시 air와 대립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틀」에서만 쓰인다는 것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 (5) (a) John managed to spend two hours on *land* today.
- (b) John managed to spend two hours on the *ground* today.

위에서 (a)의 경우는 선원과 같이 항해와 관련되는 사람임을 알 수 있고, (b)의 경우에는 기장과 같이 비행과 관련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어에서도 「바다가 땅이라면」이나 「하늘과 육지 사이에」라는 표현은 어색하지만, 「바다가 육지라면」이나 「하늘과 땅 사이에」가 자연스러운 것은 「바다」는 「육지」와 「하늘」은 「땅」과 틀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12) Fillmore(1982)는 은유현상도 인지적 틀의 차용에 의한 의미 확대의 현상으로 여긴다. 즉, 하나의 묶은 인지적 틀에서 쓰이던 낱말이 다른 새로운 인지적 틀을 만들어 쓰이게 되는 절차를 은유적 절차로 본다. 실제로 모든 의미 확장은 이러한 은유적 절차에 의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영어에서는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경계선을 *shore* 또는 *coast*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서로 다른 틀을 형성한다. 아래의 예를 보자.

(6) (a) John reached the other *shore* before dark.

(b) John reached the *coast* by Tuesday.

위의 (a)에서는 존이 바다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b)에서는 존이 육지에서 여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hore'는 바다 쪽에서의 경계선을 나타내고, 'coast'는 육지 쪽에서의 경계선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얼핏 보면 동의어처럼 보이나 틀 이론으로 보면 서로 다름을 쉽게 알 수 있다.

3.2 담화

담화(discourse)는 두 개 이상의 발화(utterance)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발화가 담화의 구성단위가 된다. 따라서 하나의 담화를 하나의 틀로 잡았을 때만 우리는 발화 하나하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여러 개의 사건이나 행위들이 하나의 인지적 틀 안에 있다는 것은 곧 그 중의 어느 한 사건이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체를 이해하는 일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다시 발화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발화는 하나의 담화의 일부로서 그것 전체와 함께 분석되었을 때만 제대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담화 안에 아래의 (7a)과 같이 두 개의 발화가 있다면, 그것을 (7b)처럼 확대했을 때 그 의미가 확실해 진다.

(7) (a) He pushed against the door. The door was empty.

(b) He pushed against the door. The door opened. He looked inside. He saw that the room was empty.

그런데 위의 예를 자세히 살펴보면, 담화만 인지적 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발화들도 저마다 하나의 인지적 틀을 만들

어 내고 있다. 결국 한 개의 큰 틀 안에 여러 개의 작은 틀들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담화인 셈이다. 더욱이 하나의 큰 틀 안에는 꼭 동형이거나 동질적인 작은 틀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형이거나 이질적인 작은 틀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큰 틀(담화)의 인지적 조직이 작은 틀(발화)의 인지적 조직과 꼭 같을 필요는 없다. 아래의 예를 보자.

(8) (a) He's not stingy – he's really generous.

(b) He's not stingy – he's thrifty.

가령 어떤 사람이 위의 (8a)와 같은 말을 했다면, 그가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지적 틀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왜냐하면 낱말 'stingy'와 낱말 'generous'는 서로 대비되는 의미이므로 동일한 인지적 틀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8b)와 같은 말을 했다면 그는 여기에서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인지적 틀을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낱말 'thrifty'와 대비되는 낱말은 'wasteful'이므로 낱말 'stingy'와는 동일한 인지적 틀에 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¹³⁾

다른 예로서 아래의 발화를 보자.

(9) (a) We never open our *presents* until the morning.

(b) We never open our *Christmas presents* until the morning.

위의 (a)에서는 크리스마스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선물은 다음날 아침에 풀어본다는 문화적 경험이 있는 사람은 크리스마스 문맥을 끌어들이므로써, 즉 문화적 틀을 사용하여 그 선물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위의 (b)처럼 'presents'를 'Christmas presents'로 대체한다면 그 표현자체가 담화의 틀을 제공하여 줌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이와 같이 담화도 틀 이론을 통하여 의미를 해석하면 보다 명확하고 쉽게 파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이런 현상을 Fillmore는 「틀 사이의 대조 현상」이라 부른다.

3.3 문화

Fillmore (1982: 111)는 형식의미론과 자기가 내세우는 틀 의미론의 차이점은 “전자는 언어를 경험과 무관한 것으로 보는데 반하여, 후자는 언어를 경험의 한 연속체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언어적 요소의 형식과 의미는 그것을 문화의 한 소산으로 보았을 때만 제대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담화는 문화의 구성단위이므로¹⁴⁾ 문화를 하나의 틀로 정하면 담화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지금부터 문화적 틀을 이용한 의미해석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문화적 틀을 알아야 낱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낱말 'cowboy'나 'witch hunt'처럼 오직 영어에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 나라 특유의 풍습이나 생활양식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쓰이는 낱말도 문화에 따라 그 의미가 약간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영어의 'bread'나 한국어의 「빵」은 같은 사물이지만 의미는 약간 다르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bread'가 주식이나 한국에서는 「빵」이 주로 간식이기 때문이다. 영어에서는 속어로 'stomach'를 'bread-basket'라 하고, 한국에서는 「밥통」이라 하는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Fillmore(1985)는 미국에서 가루비누의 크기를 나타내는 용어의 예를 들고 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큰 가루비누를 사야겠다고 생각하고 슈퍼마켓에 가서 상자에 'large'라고 적혀 있는 가루비누를 골랐다. 그런데 나중에 'large'는 가장 작은 것이고, 'jumbo', 'economy', 'giant', 'family size' 등이 적혀 있는 더 큰 가루비누가 있는 것을 알고 황당해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large'는 "small-medium-large"라고 하는 일반적인 틀과 가루비누 업계에서 사용하는 틀이 달랐기 때문이다.

다른 예로 낱말 'bachelor'의 경우를 다시 보자. 이 낱말은 생성의미론의 성분분석이론 이후 일반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자」로 정의되어 왔다.

14) 담화가 문화의 구성단위라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는 틀의 개념을 이용해서 문화와 언어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게 되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 대학생을 「총각」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혼자 사는 나이 많은 노인이나 성인(聖人) 또는 동성애자들도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자」라는 조건은 충족시키지만, 우리는 그들을 총각이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한국의 문화적 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적 틀에 대한 낱말의 예로서 한국어의 「물고기」와 「생선」을 고려해보자. 이에 대비되는 낱말로써 영어에는 아래와 같이 ‘fish’라는 하나의 낱말만 있다.

- (10) (a) This *fish* is fast.
- (b) This *fish* tastes good.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어류에 대하여 음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생선」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물고기」로 틀을 형성한다. 이것 또한 서로 언어적 틀¹⁵⁾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문화적 틀을 알아야 담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아래의 예를 보자.

- (11) (a) Help yourself.
- (b) 많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 (12) (a) How are you? or Good morning.
- (b) 진지 드셨습니까? 또는 식사하셨습니까?

위의 (11)은 주인이 손님에게 음식을 권하는 상황이고, (12)는 인사말이다. 이와 같은 관용어귀는 언어마다 매우 특이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적 틀을 알고 있어야 한다.

셋째, 문화의 틀을 알아야 대화법을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영어와 한국어의 경우, 영어로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화자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는 반면, 한국어로 말 할 때는 대화의 상대방에 따라 화계(話

15) 언어는 문화의 소산이므로 언어적 틀은 문화적 틀에 속한다고 본다.

階)를 바꾸게 된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대화를 하는 경우에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동일한 화계의 표현을 사용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반말을 쓰고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존댓말을 써야 한다.

다른 예로서 영어에서는 어린아이를 ‘child’ 대신에 ‘kid’로 많이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손자나 손녀를 부를 때,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할아버지나 할머니처럼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은 상황일 경우에 한한다. 남의 자녀를 두고 그렇게 부르면 교양이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화적 틀을 알아야만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으며, 오해의 소지나 무지의 소치를 막을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4. 맺는 말

지금까지 틀 의미론의 특성에 대하여 문장, 담화, 그리고 문화의 층위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 언어에 어떤 낱말이 있다는 것은 그 낱말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경험과 지식 기반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떤 언어표현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언어표현의 배경이 되는 틀에 대한 참조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틀의 개념은 의미나 개념과 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쉽게 이해시켜줄 수 있는 도구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는 관습적으로 하나의 낱말은 하나의 개념과 대응하고, 개념은 본질적으로 화자들에게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하나의 낱말에 대한 여러 가지 틀을 화자들의 생활 경험의 함수로 여기고, 이에 따라 화자들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의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낱말이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청자가 낱말을 다른 문맥에서 달리 활성화시켜 자신의 지식 기반이라는 틀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한다는 틀 이론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틀 의미론은 진리조건 의미론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여 언어표현의

의미해석에 대해 좀 더 설득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낱말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통해서 어휘의미론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틀 의미론은 의미가 발화의 특질이 아니라 발화와 인간의 지식 기반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산물이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는 서로의 경험과 지식 기반이라는 틀을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의 본질을 쉽게 이해하게 된다.

셋째, 의미해석에 있어서 틀 의미론이 형식주의에 근거를 둔 접근법들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학습자도 의미해석을 사전적 의미에만 집착하지 말고, 자신과 상대방의 경험과 지식기반에 따른 틀을 이용하여 학습할 것을 제안한다.

❖ 참 고 문 헌

- CHAFE, Wallace, "Loci of diversity and convergence in thought and language,"
in M. Putz & M. H. Verspoor(eds.), *Explanation in Linguistic Relativity*:
101-123, Amsterdam: John Benjamins, 2000.
- FILLMORE, Charles J, "Frame Semantics, in Linguistic Society of Korea(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I, 111-137, Seoul: Hanshin, 1982.
- _____, "Frames and the Semantics of Understanding," *Quaderni di Semantica*
6: 2, 222-254, 1985.
- LAKOFF, George & Mark JOHNSON, *Ma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LANGACKER, Ronald W,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1: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 _____, *Concept, Image and Symbol: 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 Berlin:
Mouton, 1990.
- LEE, David,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ABSTRACT

A Study on the Cognitive Learning of Meaning through Frame Semantics

Oh, Ju-Young

The concept of frame in semantics has implications for our understanding of such problematic terms as 「meaning」 and 「concept」. It is conventional to say that a particular word corresponds to a particular 「concept」 and to assume that concepts are essentially identical across speakers.

In contrast, the notion of frame accepts that the frame for a particular word can vary across speakers as a function of their particular life experience. To say, instead of thinking in terms of words as expressing 「concepts」, we should think of them as tools, like frames, that cause listeners to activate certain areas of their knowledge base, with different areas activated to different degrees in different contexts of use.

This notion is Fillmore's most crucial contribution to current cognitive linguistic theories, and his frame semantics is built on such a notion. This paper discusses the basic assumptions and goals of frame semantics, and examines the notion of frame and illustrates various framing words of English and Korean under such a notion. (Kyungsoo University)

Key Words

인지언어학, 개념, 틀, 틀 의미론, 지식 기반

cognitive linguistics, concept, frame, frame semantics, knowledge base

논문접수일: 2010. 2. 25.

심사완료일: 2010. 4. 10.

게재확정일: 2010. 4. 15.